

창 2:1-3 우리는 지금 일중심 사회에 삽니다. 언제나 해야할 일이 있고, 좀체로 쉴 틈이 없습니다. 어린이날도 한국은 휴일인데, 그날도 못 쉬는 한 하청업체가 직원 자녀들에게, 대신 편지와 상품권을 보냅니다. 올해는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어린이, 안녕하세요? 아빠가 다니는 회사 아무개 부장 아저씨예요. (중간은 생략하고) 이렇게 좋은 날도 아빠와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건,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회사에서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랍니다." 매년 상품권도 오는데, 정작 아빠들은 휴일 수당도 없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노동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수록 잘 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쉼이 반드시 필요하고, 쉬는 게 맞다고 가르치십니다. 창조주도 일하다 쉬셨음, 피조물 인간 역시, 일하다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따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정말 바쁘셨습니다. 가는데 마다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뿐 아니라 찾아가신 사람까지, 자칫 workaholic 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막6:31ff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무리를 피해 당신도 배 타고 떠나십니다.

우리도 잘 쉬어야, 다시 일할 새 힘이 납니다. 그런데 제칠일을 축복하고 거룩히 따로 떼어 놓으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우리더러 안식하라 명하신 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이 안식으로 부르신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참된 안식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말씀 창2:1-3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기도)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이란 명사 샤바트는 "끝났다, 마쳤다"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끝내셨다, 그래서 쉬셨단 뜻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일은 일주일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창조된 인간에게는, 가장 첫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하는 것부터 인간 존재는 시작되었고 영원히 안식할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을 다스리는 일 시작 전부터, 안식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안식하면서 여유롭게 창조주를 생각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게 지어진 겁니다. 안식일은 먼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사실, 그 분의 능력과 창조의 신비, 창조에 나타난 그분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루를 쉬고 나면, 다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참되고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히 4:9-10,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천국 백성이란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가 완성된 걸 즐기는 날인데,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 주일이 되었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맞는 말도, 틀린 말도 됩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게, "안식후 첫날"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그날 예배를 위해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도 주일입니다. 창2: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자체가 복이란 뜻보다 이날 인생을 위해 주님 하신 일이 복됩니다. 즉 천지 창조가 인생을 위해 된 일이고,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령을 보내신 날이니, 창조와 재창조가 이뤄진 날, 또 마침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뜻이 완성될 날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주일은 장사도 않고 절대 일하지 않는 주일성수를 믿음의 표로 알고, 주일을 마치 신약 시대 안식일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전통대로 노동은 물론, 헌금하는 이외 돈 쓰거나 일체 오락을 금한 교회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안 타고, 식당에서 밥 먹거나, 극장, 스포츠 오락도 금하고, 주일에 보는 시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일에 일하면 안 됩니까?

초대 교회 주일은 예배일이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나 하층민 교인들이 많았는데, 일 않고 쉴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일하고 주일 밤에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일요일이 공휴일이 된 건,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4세기부터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주일을 예배일로 알았지, 신약의 안식일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일 다 마치고, 밤 늦게 성찬이 포함된 만찬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오히려 주일은 일주일 중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치 않았습니다. 루터는 칼빈보다 더 강하게, 매주 쉬는 날이나 심지어 예배도 종교적 의무로 지켜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교도가 율법적인 주일성수를 만들었습니다. 청교도는 분명 세상과 타협치 않고, 금욕적이고 정숙한 신앙을 지킨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이고, 자기와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 추한 면도 있습니다. 속어로 청교도는 위선자란 뜻입니다. 나다니엘 호돈의 주홍글씨는 청교도들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할 때 소설입니다. 주인공 딘즈데일 목사로 상징된 위선, 로저 칠링워스로 상징된 억압이 청교도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안식일처럼 구약 명령으로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일날 불 피우거나, 요리하거나, 나무 줍거나, 여행하면 안 됩니다. 불 피우는 건 오늘날 전기 쓰는 것 아닙니까? 전자레인지에 음식 데우는 것도 그렇고, 안식일에 나무 줍다 돌에 맞아 죽었는데, 샤워도 주일에는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됩니다. 여행도 못하면, 예배도 걸어갈

거리에 있는 교회만 가야 합니다. 결국 율법으로 돌아가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라는 유대주의가 되고합니다.

마태복음에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냐 없냐 하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보란듯이 바리새인들 보는데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래서 마치 안식일을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안식일 논쟁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태복음은 안식일 논쟁을 철저히 기독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틀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참된 안식을 제공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안식이 절박한 병자에게 안식을 주신 걸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섯번째 말씀이 '안식'이란 단어와 뜻이 같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 즉 우리 안식은 예수님이 다 이루고 끝내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뭘 다 이루시고 끝내셨습니까? 우선은 우리 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어 마땅한데, 그 모든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요구를 이루고 완전한 삶을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 받으실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 땅에 천국 세우시는 일을 마치셨단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백성은 예수를 통해 종말론적 안식에 이미 참여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구원에 참여해, 영원한 안식 누리는 게 안식의 성취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완전 폐지된 겁니까?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단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의 안식에 들어가면,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 육체적 안식은 필요합니다. 육체가 완전한 구원되는 건 장래 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신 창세기 안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자기만 아니라, 고용인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맹렬히 공격한 대상에는 안식일도 들어갑니다. 주일을 신약 안식일로 지키는 건 복음 아닌 복음 플러스입니다. 골로새서는 그걸 혼합주의라 합니다. 골 2:16-17 안식일 규정은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날, 영원한 안식에 관한 그림자입니다. 롬 14:1-12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킨 건, 아직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치 못한, 믿음이 약한 소치입니다. 히 4:2 복음에 반응해 구원에 들어감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일은 마지막 때 주어질 참된 안식의 그림자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일 때 이 땅에서 이뤄지고, 주님 다시 오실 종말의 때 완성됩니다.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요일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실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일만 하나님 날이 아니라, 사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 중,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구별해 거룩케 하셨습니다. 창조를 완성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참된 안식의 날, 그 날을 즐거워하며 그런 복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특별히 따로 떼어 거룩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야 합니다.

대신 옛세 동안은 힘써 일해야 합니다. 힘써 일한 사람만이 안식을 사모합니다. 안식을 사모하면서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옛세 동안은 힘써 일하고, 거룩한 날은 성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일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일 욕심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기대도 생깁니다. 그래서 workaholic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염려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걸 맡겨주셨던 주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니까, 일 안하고 쉬면 어찌되나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잘 잊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늘 기억해야 의지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일 맡기신 분도 주님이시니, 이 일을 이루실 분도 주님이시다 그렇게 일을 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기억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날 때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왕과 귀족들에게 사회정의를 외칠 때마다, 안식일 정신을 촉구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돌아보라 촉구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당신이 하실 일 하셨던 게 바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쉼과 예배 날로서의 안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외된 자들의 안식을 위해, 주님 제자는 기꺼이 휴식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라면 안식일 어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 선행이고 참된 안식을 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 사역에 동참하는 건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거나, 주일을 신약의 안식일로 대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정신은 계속 유효하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교회의 의무는 오늘날도 여전합니다.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날 역시 똑같이 특별히 거룩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중요하고,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덜 중요합니까? 모든 날이 소중한 것같이, 모든 예배는 중요합니다. 사실 넓게 보면 주의 날 아닌 날이 어딴습니까? 주일을 특히 거룩한 날로, 주일예배를 특별히 중요한 예배로 드리는 차별적인 태도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안식일 지키는 안식교와 같습니다. 성도가 주일날 못할 일은, 다른 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날 할 수 있는 일이면 주일날 해도 상관 없습니다.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도 안 되지만, 예배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강조할 때마다, 방종의 기회로 삼을 사람이 걱정됩니다. 주말 즐기겠다고 주일의 참 뜻을 무시하면 율법주의 만큼이나 하나님 뜻에 어긋납니다. 주일은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쉬는 날이니,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 적합한 날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그날 일하지 않는 건, 명령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권장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창 2:2 절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은 일주일 최소

하루는 육체적으로도 쉬는 게 종단 뜻입니다. 마침 휴일인 주일날 예배로 모이는 건 현실적이고도 좋은 전통입니다.

구약 안식일이 변해, 신약 주일이 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축하하려고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며 이 땅에서부터 안식을 누리는 게, 참된 안식입니다. 계 22:3-6 참된 안식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양과 함께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 중에 신약 성도에게 적용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의 노예가 되거나 Workaholic 이 되면 안됩니다. 아직 연약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는 게 우리 몸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뤄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기적 안식이 필요합니다. 쉬는 날 모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주일은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에 초대된 겁니다. 예배 모임은 초대이자 명령입니다. 히 10:25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하지 말고." 이 설교를 오해하면, 무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현대교회가 무법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주일성수하는 성도라도 있음 좋겠단 목회자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만도 못한 헌금과 예배, 기도와 말씀에 열심내지 않으면서, 그들을 욕할 자격 없습니다. 복음을 믿기는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사이 균형을 잡아,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